

월요광장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오랜 침묵을 깨뜨린 사람들

맛다. 사람이 어찌 쉽게 바뀌겠는가! 나는 재차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녀는 함참을 고민했다.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본다면 어떨까요?” 침묵이 흘렀다. 잠시 상상을 하는 것 같았다.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엇이 두렵냐는 말에 J는 아버지에게 뺨을 맞거나 집 밖으로 쫓겨난 초등학교 기억을 떠올렸다. 시간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칠순의 노인 앞에서 여전히 초등학교 어린이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만약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칠순의 아버지가 당신의 뺨을 때리거나 쫓아낼 것 같나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초등학교 때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이야기 꺼낸 것을 후회할 것 같나요?” 상담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어릴 때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상처받은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차츰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아버지는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신은 과거의 어린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향을 찾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또 막말을 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한데 욕하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에게 욕할 때마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실 수 없어요? 줘!” 그녀는 순간 감정이 폭발할 줄라 흐느꼈지만 하고 싶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다 토해 냈다. 갑작스러운 딸의 반응에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적잖게 당황했다고 한다. 어안이 병병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슬그머니 방을 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집을 비울 때까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녀가 떠난 뒤로 어머니 앞에서도 눈치를 보며 딸을 조심한다는 것이었다. J는 이번 일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부당한 일을 경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일까? 아니다. 아버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이다. 단언컨대 이는 틀림없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렇게 어색해진 부모 사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겨도 합구합니다. 어쩌다 작은 불만이이라도 하나 이야기하면 큰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다툼은 다시 대화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부부는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오해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러 범정에 나란히 앉은 부부는 각자의 시선에서 해석한 사실 관계를 저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3자인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도 과거 어느 시점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것입니

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애써 감춰온 내면의 진실이었다.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뒷맛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 고백을 통해 상처의 피해자에서 치유의 행위자로 탈바꿈했다. 그 뒤로 상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용기는 두려움의 반대기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를 말한다. 동물은 두려움을 느끼면 도망치거나 얼어붙어 버린다. 그러나 인간은 두려움에 대해 동물과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다. 두려움을 마주 보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용기이다. 그 용기는 언제 생기는 것일까? 바로 내면의 진실과 대면할 때이다. 이제 사회 각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상처받은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낡은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그들의 용기를 발휘할 때이다. 오랜 관행과 침묵을 깨뜨릴 때이다. ‘원래 그러려니~’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무력하게 순응하는 날개들이 아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다.

법조칼럼



정희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내고 있을 부부들(실제 이러한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까지 더해보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더 이상 이혼 경력이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눈앞에서 이혼하는 부부를 보고 싶다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 이유가 대화의 단절에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이 대화가 단절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쁜 일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40대 이하의 부부들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실제 가정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낮 동안 일터에서 받은 온갖 정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집에 들어오면 그저 드러눕고만 싶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화의 단절은 감정의 공유를 차단합니다. 서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 사이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니까 서로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안다? 단언컨대 이는 틀림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렇게 어색해진 부모 사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겨도 합구합니다. 어쩌다 작은 불만이이라도 하나 이야기하면 큰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다툼은 다시 대화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부부는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오해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러 범정에 나란히 앉은 부부는 각자의 시선에서 해석한 사실 관계를 저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3자인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도 과거 어느 시점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것입니

다. 특별히 서로를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잃게 되었을 뿐일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 바쁘게 산 이유는 뭘까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힘들더라도 참고 바쁘게 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가 가족의 행복이 아닌 가족의 파탄이라면? 그리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대화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다들 했던 것들이니까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뭘 해?’ 등등.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저와 제 아내가 연애를 시작한 지 꼭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 하루 종일 두 아이 뒤처다꺼리하느라 지쳤을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려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나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기고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재분배 시스템의 중요성

그것이 주요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할까? 핵심 지지층도 자유 무역의 혜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 전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보호 무역 조치를 환영하고 있을까? 사실 2016년 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소득 불평등 문제였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무역 자유화가 지목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해 내겠다는 주장으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유 무역의 혜택, 쇠락 산업의 종사자 및 민주적 선거 간에 어떤 역학이 이런 현상을 낳은 것일까? 국제 무역에서 비교 우위 이론은 기술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교역하면 두 나라 모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교 우위 상품이 특화했을 때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면 비교 우위와 열위 상품이 속한 업종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엇갈리게 된다. 한 나라에서 금융서비스와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다가 교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금융서비스에 주력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자동차 분야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직업을 잃거나 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금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 자동차 분야에서 일

했던 사람이 직업 훈련을 통하여 금융 등 다른 분야로 쉽게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들의 임금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유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가 빠르게 금융업으로 전환하여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제 무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자동차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혜택을 소비자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자동차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교육 훈련비, 실업 급여 및 여타 복지 등의 형태로 보상에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에 대해 자동적 업계의 종사자들은 반발하게 되고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자는 주장, 즉 보호 무역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용, 임금 등에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 무역을 통해 얻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행태 경제학에서는 한 개인이 소득이 증가할 때 느끼는 만족도 상승도가 같은 크기만큼 소득이 감소할 때 느끼는 고통 크기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 같은 크기의 소득 감소라도

저소득층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 아울러 상당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교 우위 업종의 종사자는 고기술·고학력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 무역으로 소수의 저소득층이 추가되는 상실감과 고통이 큰 경우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고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미국 등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최근 보호 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후보나 정당이 저소득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 선거에서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제에서 축소 균형을 유발하여 자유무역에 따른 생산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잃어버리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나아가길 올바른 방향은 자유 무역을 확대하되 사회 안전망과 재분배 시스템을 잘 갖춤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 무역에 따른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재분배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또 미국 등 보호 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들에게 자유 무역을 고수하도록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시점이다.

社說

평창 올림픽의 감동 광주 세계수영대회로

지구촌 겨울 스포츠 대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해 값진 결과를 일궈낸 올림픽 영웅들의 성취는 ‘감동의 드라마’였다.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은 애초 우려와 달리 대회 운영과 흥행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팽팽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 공동의 개막식 입장곡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켜 ‘평화 올림픽’을 구현했다. 흥행도 성공적이었다. 판매 목표치를 넘어선 입장권 수입은 1500억 원을 돌파해 ‘흑자 올림픽’이 기대된다. 대회 운영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여기엔 1만4000여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세계 신기록 한 개와 올림픽 신기록 열두 개가 양산되는 등 기록도 풍성했다. 태극 전사들은 여자 컬링과 봅슬레이 등에서 기적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

며 역대 최다 메달(17개)을 수확했다. 강원도는 대회를 계기로 교통과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국제 스포츠계의 시선은 광주로 이동하고 있다.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2019 세계수영 선수권대회가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민중·인권·평화의 광주 정신과 문화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는 이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러내 그 저력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남은 기간 경기장 공사와 부족한 숙박 문제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에너지를 모아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추악한 성폭력 범정부 차원 대응 필요하다

전남도 출연기관 간부가 여직원 두 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나 전남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 5급 팀장 김 모 씨는 여직원 2명을 수개월간 성희롱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시작된 ‘미투’(me too,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이 문과계를 비롯해서 각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폭로되고 있다. 연극 연출가 이운택 씨는 며칠 전의 성폭력 사고 기자회견마저 사전 시나리오를 짰 뒤 불쌍한 표정 연습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다. 중견 배우 조민기 씨도 자신의 모교인 청주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최근까지 딸 같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조근래 영화감독의 성희롱

의혹에 이어 배우·제작자 등에 대한 폭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투 운동의 파문은 급기야 종교계 로까지 번졌다.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의 한 신부가 7년 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현장에서 여신도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 신부는 2011년 남수단에 파견 근무 중 신자인 김 모 씨를 식당에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생사여탈권을 쥐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농락하는 것은 권력형 성범죄이며 이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끔찍한 사회적 병소다. 그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가족부도 문화관광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특수성으로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피해자 관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이 끝나자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내놓는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쟁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날다는 게 요지다. ‘어떤 이념과 세계관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하는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양한 이념과 세계관이 경쟁을 펼치던 종전까지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요즘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는 권력의 종언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의 종언’은 인간과 사회를 해석하는 다양한 이념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일 이념으로 수렴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권력의 종언’이란 많은 돈과 높은 지위, 강력한 남성으로 표현되는 기존 권력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세 세상의 의미한다는 점에서다.

모든 변화의 양상이 그렇듯이 조짐은 있어 왔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유전무죄·무전유죄’ 그리고 ‘금수저·은수저’논란이 변화의 시발점이다. ‘유전무죄·무전유죄, 금수저·은수저’는 돈·자본이 만들어 낸 권력에 대한 ‘기난한 자’들의 반발이다. 요즘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SNS에서 치도곤을 맞곤 하는 ‘갑질’은 높은 신분과 지위가 만들어 낸 권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란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투 운동’이란 그동안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누려 온 ‘남성’이라는 권력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아니하던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많은 나이, 엄청난 돈, 좋은 직업, 높은 지위, 남성과 같은 기존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경의(敬異)에서 감시(監視)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촛불 혁명을 통해 ‘잘못된 권력은, 제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모두가 못지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더욱 빠르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종언이 만들어 낼 세상이 기다려진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